

SPECT를 이용한 강직성 척추염의 척추이환 진단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서울중앙병원 핵의학과, 진단방사선과*, 면역내과**

최윤영, 양승오, 류진숙, 신명진, 유빈**, 이희경

강직성 척추염의 조기진단에 있어서 평면 골스캔의 유용성은 널리 알려져 있으나, 3차원적 정보를 얻을 수 없으므로 척추와 같이 복잡한 구조물에서의 병변을 국소화하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강직성 척추염 환자에서의 척추이환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척추 SPECT의 역할을 알아보았다.

임상적으로 강직성 척추염으로 진단받은 24명의 환자(M:F=21:3, 17-65세)에서 전신 골스캔과 척추 SPECT를 시행하였다(요추: 20명, 흉추 1명, 흉·요추: 3명). 척추 SPECT는 고해상 삼중헤드감마카메라를 이용하였다. 환자군은 단순방사선 사진 소견에 따라 I군은 정상 또는 경한 골미란, 돌기(spur)의 소견을 보이는 경우, II군은 죽상 척추(bamboo spine)의 소견을 보이는 군으로 나누어, 전신 골스캔과 척추 SPECT 소견을 비교하였다.

I군(n=18)은 평면 골스캔에서 정상이 10명, 척추에 하나의 열소가 3명, 여러개의 열소를 보인 경우는 5명이었는데, 이들의 척추 SPECT에서는 정상으로 보인 경우가 6명이었고 12명에서는 여러개의 척추후관절(facet joint)에 열소를 보였다. 이중 5명의 환자에서는 척추체 전방의 열소도 관찰되었다. II군(n=6)은 평면 골스캔에서 열소들이 관찰되었는데, 이는 SPECT상 척추후관절이나 척추후궁의 병변으로 이중 3명에서 단층촬영이나 단순 척추사진에서 가성관절로 확인되었다.

척추 SPECT 영상은 강직성 척추염의 척추이환을 단순 방사선 사진이나 평면 골스캔보다 예민하게 진단할 수 있었으며, 또한 죽상 척추 환자에서 가성 관절을 진단하는데 도움을 준다.